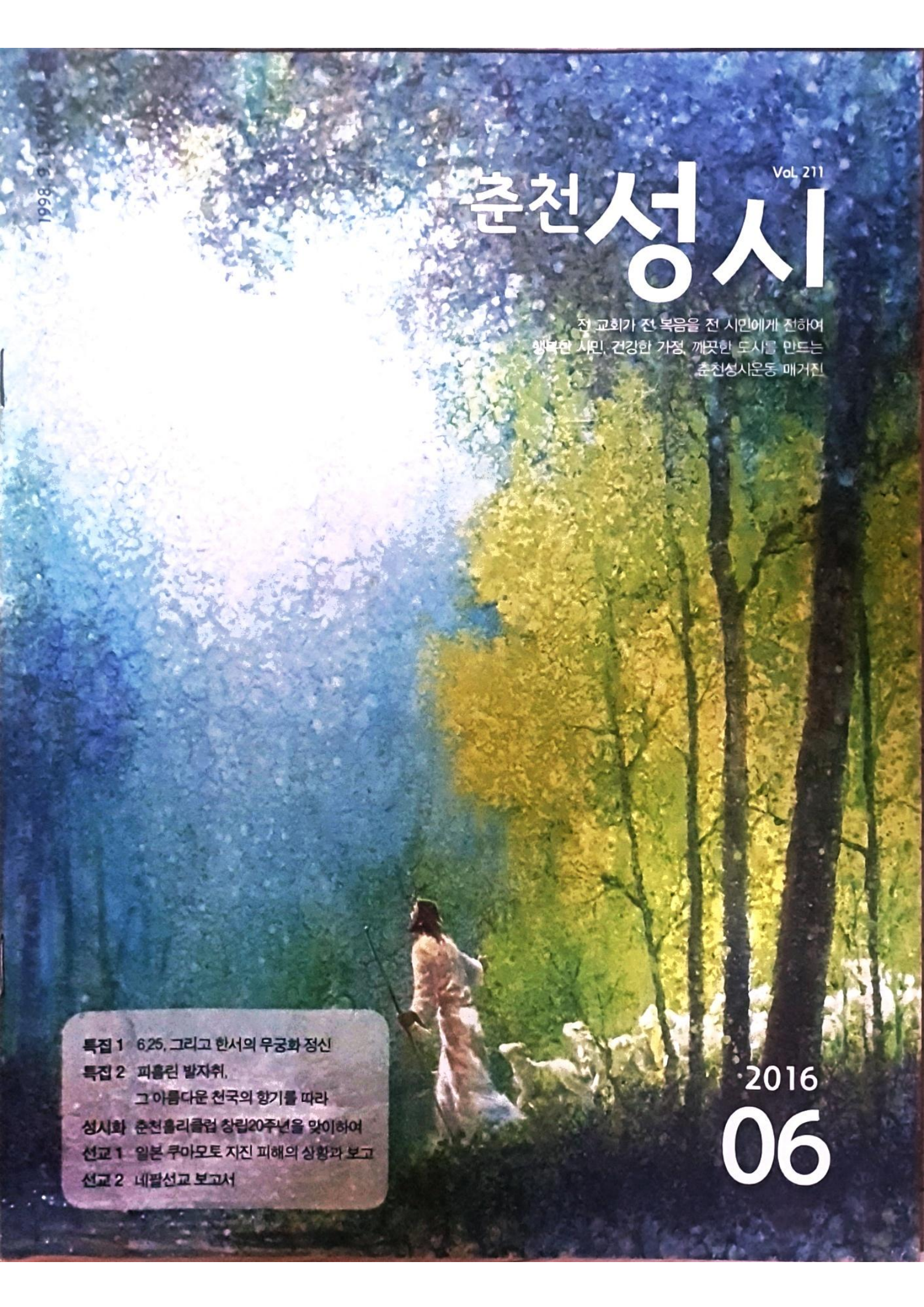
1998. 6. 15

Vol. 211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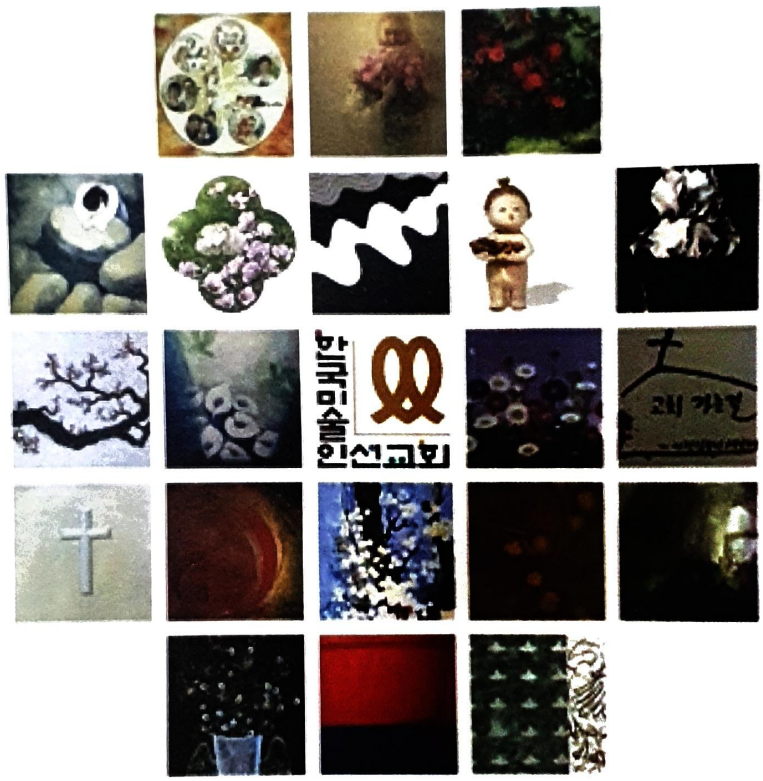
특집 1 6.25, 그리고 한서의 무궁화 정신
특집 2 피흘린 발자취,
그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를 따라
성시화 춘천홀리클럽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 1 일본 쿠마모토 지진 피해의 상황과 보고
선교 2 네팔선교 보고서

2016
06

빛으로 은혜로

The Exhibition with the Grace of the Light

갤러리 오르 초대전



2016. 5. 2_ Mon – 6. 27_ Mon

Opening : 2016. 5. 16_ Mon P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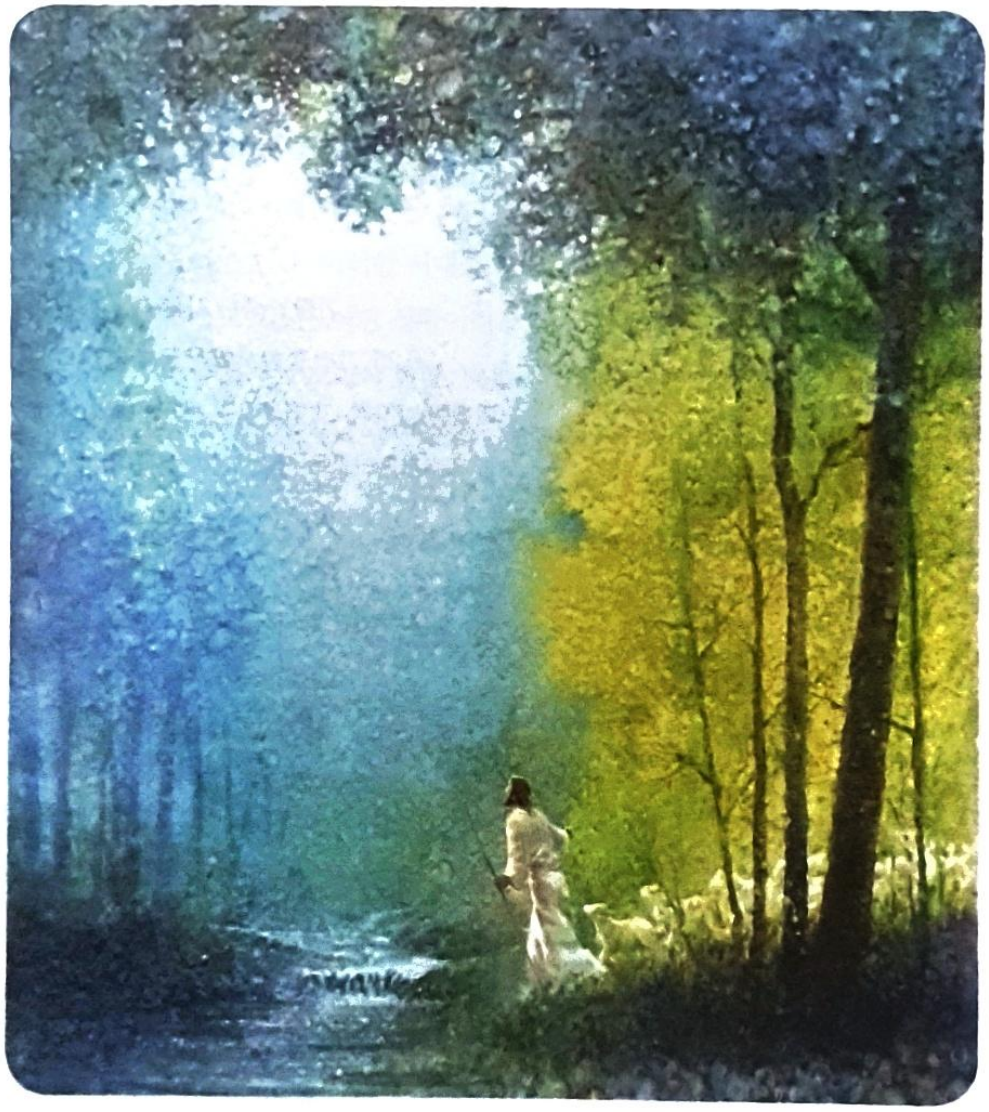
갤러리 오르

24416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1길 16(석사동 907-3) T.033) 261-0695

16, Seumuseup 1-gil, Chuncheon-si, Gangwon-do, 24416, Rep. of KOREA

주최 : 한울섬김교회

커버 스토리



쉴만한 물가

김용성 I OIL ON CANVAS I 2015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무리를 푸른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한국적인 풍경에 접목해서 표현 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척박한 배경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깊이 공감하기 힘들거 같다.
어쩌면 현대인의 환경은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과도 같을것이다.
공허한 영혼들의 갈급함을
선한목자 예수님 통해서 해갈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공감해 주길...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장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언희,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CONTENTS

2016. 06
Vol. 211







커버스토리	쉴만한 물가	01
Editor's Note		03
6월 캘린더		04
사설	가장 소중한 사람	06
특집 1	6.25, 그리고 한서의 무궁화 정신	08
특집 2	피흘린 발자취, 그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를 따라	12
성시화	춘천홀리클럽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16
쉼 한편	어머니에 대한 고백	17
통일	쥬빌리 53차 모임	18
선교 1	일본 쿠마모토 지진 피해의 상황과 보고	20
칼럼	섬김이냐 갑질이냐	23
선교 2	네팔 선교보고	24
다음세대	강균성 토크콘서트 스케치	28
시사 1	신천지와의 싸움	30
예수안에서 본 예술	시소놀이	33
시사 2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어떻게 다른가?	34
기획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38
설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진 다음세대	42
교회탐방	순복음제자교회 이정하목사	44
예향/만평		49
건강이야기	너희가 먹을 만한	50
영화이야기 108	저스트 렛 고	52
예수의 미소 70	라면이야기 (1)	54
음악이야기	G.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56
알려드려요		58
5월을 돌아보며		60
세계성시화운동 소식	태백성시화운동본부 발족	62
후원자명단		64

Editor's Note

애국심의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동안 모든 일에 칼날처럼 베어냈던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좀 희미해지고 있고, 조국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모든 상황을 제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에 대한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와 얽힌 문제일지라도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때론 국가로부터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반국가적인 태도와 반감을 가지고 저항하거나 끝내는 조국을 떠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한다면 이 세상살이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과 원칙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사회적 대 국가적인 사명이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국가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는 병들고 국가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사랑하는 애국심의 발로이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대해 외쳐야 하는 사명도 있다. 그러나 정작 변화되어야 할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만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2천년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 그들은 히브리어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의 자식에게 전수해 주었고,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 나라사랑은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뼈대 중의 하나이다. 선지자들을 보면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였고 눈물로 기도하였다.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쓸 때와 같이 자랑스러울 때는 한없이 기뻐할 수 있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울분과 분노를 느끼기는 쉽지만,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애국심은 격동된 분노의 몸짓으로나 냉소적인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내가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장 최영조

2016 6

SUNDAY | MONDAY | TUESDAY

·· 이달의 말씀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 이달의 기도제목 ··

·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소서.

·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소서. 용기와 분별력으로 시대적 난제를 잘 풀어가게 하시며, 요셉과 다니엘처럼 지혜로운자들을 붙여주셔서 국정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5

6
현충일
- 예수전도단 ~7/5 까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운동

7
- 통일기도모임 매주 오후 4시, 주향교회
-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동부장로교회

12

13
- 춘천쥬빌리구국기도회 54차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4
- 성시지도자 기관단체장모 오전 7시, 옥희네밥집
- GBT ~16 까지 지선학 평가회

19

20
- 춘천장로연회 월요기도회 오전 6시 30분, 창대교회

21

26
- GBT 춘천지부 연합혜배 저녁 7시, 화목교회

27
-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 JDM ~7/2 까지 전국대학여름집회, 경일 대학교
- CCC ~7/1 까지 전국여름 수련회 평창 휘닉스 파크
- 예수전도단 ~6/30 까지 중부미션컨퍼런스
- IVF ~7/1 까지 강원연합수련회 횡성서초수련회

28
- 직장선교회 연합예배 정오, 동부교회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 예수전도단 ~7/20 까지 맘스바이블 매주 오전 10시 •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 IVF회관	**2** •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이슬람대책세미나 강사 이만석선교사 오전 10시 성광교회	**3** • 춘천기드온조차모임 매주 오전 7시, 미가식당	**4** • MCF 예배 오전 7시, 신성감리교회
8 • 춘천성시 편집회의 오전 2시 • 홀리클럽 창립20주년 집회 오후 7시30분, 신성감리교회 • IVF 강원지역연합간사모임 원주 IVF회관	**9** • JDM 종강채플	**10** • JDM 위그린 국제학교 방학식 • 성시본부 성시이사회 오전 7시	**11** • 어린이전도협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안내 오전 10시, 순복음춘천교회
15	**16**	**17** • 기드온전국대회 ~19일 까지 제주라마다 호텔	**18** • IVF학사회임원모임 춘천 IVF회관
22	**23**	**24** • 기사선교회 정기예배 오전 11시, 춘천제일감리교회 • 쥬빌리통일컨퍼런스 ~26 까지 주향교회	**25** • 춘천장로연합회 6.25 구국기도회 오후 4시, 창대교회 • 강원 CBS 뮤지컬공연 하나님의 사람 유관순 저녁 7시30분, 한림대 일송아트홀
29	**30**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가장 소중한 사람

글 박찬욱 목사 (새순교회)

사람들은 모두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큰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요, 큰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요, 그 값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너나없이 모두 어릴 때부터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격려의 말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관심을 덜 가져도 별 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대범하다는 덕목을 더 해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인체 기관 중에 뇌나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곧 죽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육체의 각 기관의 중요도를 순서에 따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겉도는 별 볼일이 없는 듯한 신체 부위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곧 다른 부위에 영향을 끼쳐서 몸 전체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견고한 구조로 되어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사회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실하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들의 힘이 모여 탄탄한 기반을 이루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겉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작은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일 뿐만 아니라,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인간끼리 높고 낮음이, 귀하고 천함이, 큰 자와 작은 자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각 개인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래 전 미국의 대 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씨가 후계자를 지명한다고 말을 하자 누가 그의 후계자로 지목될 지에 대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유능한 중역들과 직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상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는 '쉬브' 라고 하는 후계자가 추대되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쉬브' 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처음에 카네기 강철 회사의 정원을 정리하는 청소부로 채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원은 물론, 공장 구석구석까지 청소를 깨끗이 할 뿐 아니라 겸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정식 사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변함없는 성실과 겸손한 태도는 마침내 사장이었던 카네기의 인정을 받아 비서가 되었습니다.

'쉬브' 는 카네기의 비서가 된 후에도 종이와 펜을 가지고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성실성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카네기 혼자서 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에 대해 구상하고 나오는데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카네기는 '쉬브' 에게 "왜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장님이 언제 저를 찾을지 모르는데 어찌 제가 먼저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하여 놀라게 했습니다.

카네기는 '쉬브' 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자네의 성실한 정신력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이 회사는 계속 성장하리라고 믿네! 자네가 전문성이나 지식이 필요하다면 훌륭한 박사나 전문가를 고용하면 될 것일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비결은 학력이 아니라 "성실, 친절, 그리고 겸손한 자네의 태도라면 충분하다고 나는 믿고 있네!"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 성실성과 됨됨이 보다는 기능이나 학력, 또는 인맥, 지연 등이 먼저 통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좋은 자리를 바라기 전에, 나의 성실과 친절 겸손한 태도를 갖는 일의 중요성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100세때 아들을 얻으리라는 축복을 약속 받습니다.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나의 진정한 인격과 친절의 지수를 나타내는 눈금이 됩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난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교만하고 불성실한 사람보다는 친절과 성실, 겸손함이 몸에 베인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라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집 1

6.25, 그리고 한서의 무궁화 정신

글 신현포장로 (한서선교회, 종교감리교회)

해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이 다가오면 그 시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전쟁 후 빈곤 속에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새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일은 김일성 집단의 조직적이고 돌발적인 침략전쟁으로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워주셨음에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전쟁발발 당일에 유엔을 통하여 신속하게 한국을 도와 유엔군을 파병하도록 결정하게 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산화를 면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기에 우리는 지금 원조 받고 살던 나라에서 반세기도 채 안되어 세계 빈곤국들을 도우며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내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판단을 잘못한 일 가운데, 유엔이 그렇게 신속하게 전쟁에 개입하리라 생각 못한 일이고 두 번째가 공산군이 진입하면 지역 공산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로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주미대사 겸 유엔 한국대표였던 장 면의 신속한 요구로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제소하여 북한을 침입자로 규정하고 한국을 도와

유엔이 참전하도록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당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상임이사회의에 고의로 불참함으로서 소련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엔의 참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공산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8.15해방 후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침하여 공산군이 진입하면 지역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3일이면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한 한 가지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찍이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해진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기독민족지도자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전해지면서 신앙구국정신, 자유민주정신, 반공정신, 농촌계몽정신 등의 새로운 개혁정신으로, 근세사의 시대정신으로, 나라 잃은 식민시대의 암흑기를 밝히면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음을 저들은 간과하였던 것입니다.



▲ 독립운동가 남궁억

기독민족지도자 가운데서도 선각자로, 사상가로 정신적 지도자였던 한서 남궁 억은 일찍이 서구 문명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구한말 관료로서, 시민운동가로 또는 언론인으로 교육학자로, 역사가로, 농촌계몽가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우고 전하면서 한평생 나라 구하는 일에, 또 말씀을 가르쳐 나라 세우는 일에 온 몸 바쳐 순교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서는 새로운 시대정인인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자는 신앙구국정신을 바탕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있은 다음 해 2월 어느 연회 석상에서 잘 알려진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의 기초 다져 놓고, 청초호 자유수를 영(嶺)넘어 실어 넘겨, 민주의 자유강산 이뤄놓고 보리라"라는 자작시를 노래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침탈되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일제를 상대로 한 독립운동의 선언입니다. 또한 독립을 하되 단순한 왕정회복이 아니라 '민(民)이 주인' 인 자유민주국가로 독립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망했다고 하지만 아직 왕정 하에서 관료의 신분으로 또한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자유민주체제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은, 일제와 아울러 기존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함부로 내세우기 힘든 내용으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세대를 뛰어넘는 앞서가는 시대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서의 이와 같은 자유민주정신은 근세사의 시대정신으로 이어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1919년 3월 1

일 만세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비록 국민과 영토가 없는 망명정부일망정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해방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정부로 건국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자유민주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는 식민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여 3.1만세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국내외 항일독립운동이 활기를 띄우던 1925년 4월 경 민족지도자들 중에 일부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지도자들이 별도로 공산주의 혁명방식에 의한 항일독립투쟁을 목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나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1928년경에는 일제의 억압으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족지도자들 중에서도 기독민족지도자들은 공산주의 이념의 모순을 들어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서는 1933년 십자가당 사건에 연루되어 홍천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절대로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사회는 실현될 것이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므로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1]

당시만 하여도 공산주의 이념에 대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한서는 이미 공산평등의 불합리한 모순을 간파하고 공산주의의 종말을 예견[2]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예리한 분석력과 아울러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한서의 반공정신은 자유민주정신과 함께 8.15해방정국에 좌우, 남북의 극한 대립가운데서도 1948년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시대정신이었으며, 절체절명의 6.25남침에도 월남처럼 공산화 되지 아니하고 당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시대정신이었다고 믿습니다.

한서는 이 외에도 시대정신으로 애국독립정신, 농촌계몽정신, 근로정신, 실용실천정신 등 식민시대 암흑기를 헤쳐 나갈 구국의 시대정신을 내세우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 언제나 무궁화를 매개로 하였으며, 보리울에서는 손수 무궁화묘목을 기르는데, 그의 시대정신을 쏟아 부으면서 정성껏 길러서, 전국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농촌지도자들에게 전할 때, 또한 그의 시대정신으로 포장하여 전하였기에 일제는 무궁화묘목, 애국독립운동은, 한서 남국 억의 동의어라고 믿고 묘목장의 묘목은 물론 전국 마을마다 심겨진 무궁화나무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서선교회에서는 한서의 시대정신을 한데 묶어 한서의 무궁화정신이라 부르고 있으며, 6.25를 맞이하여 그의 믿음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후원: 국민은행 427501-04-092074
신현포(한서선교회)

1 일제 심문에 대한 답변 내용 : "나는 조선민족이므로 어디까지나 애국주의이며 영구불변의 민족사상을 가지고, 나는 공산주의에는 절대 반대하지만 머지않아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유산자는 소수이고 무산자는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유산자가 지고 무산자가 이길 때는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천지만물 중에 우승열패라는 것은 원칙이다. 그래서 비록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불의를 가지고 정의를 타파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원칙이기도 하지만 무산자가 우승해도 그것은 진리에서의 우승이 아니므로 수명이 짧은 것이다."

2 1991년 소련연방해체로 지금 지구상에는 변형된 공산주의만 존재한다고 본다.

특집 2

피흘린 발자취, 그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를 따라

글 정덕현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총무, 푸른초장침례교회)

2016 춘천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주관으로 국내순교성지 순례가 있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소재한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과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산리 소재 염산교회(예장 합동) 그리고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 소재 야월교회(예장 통합)를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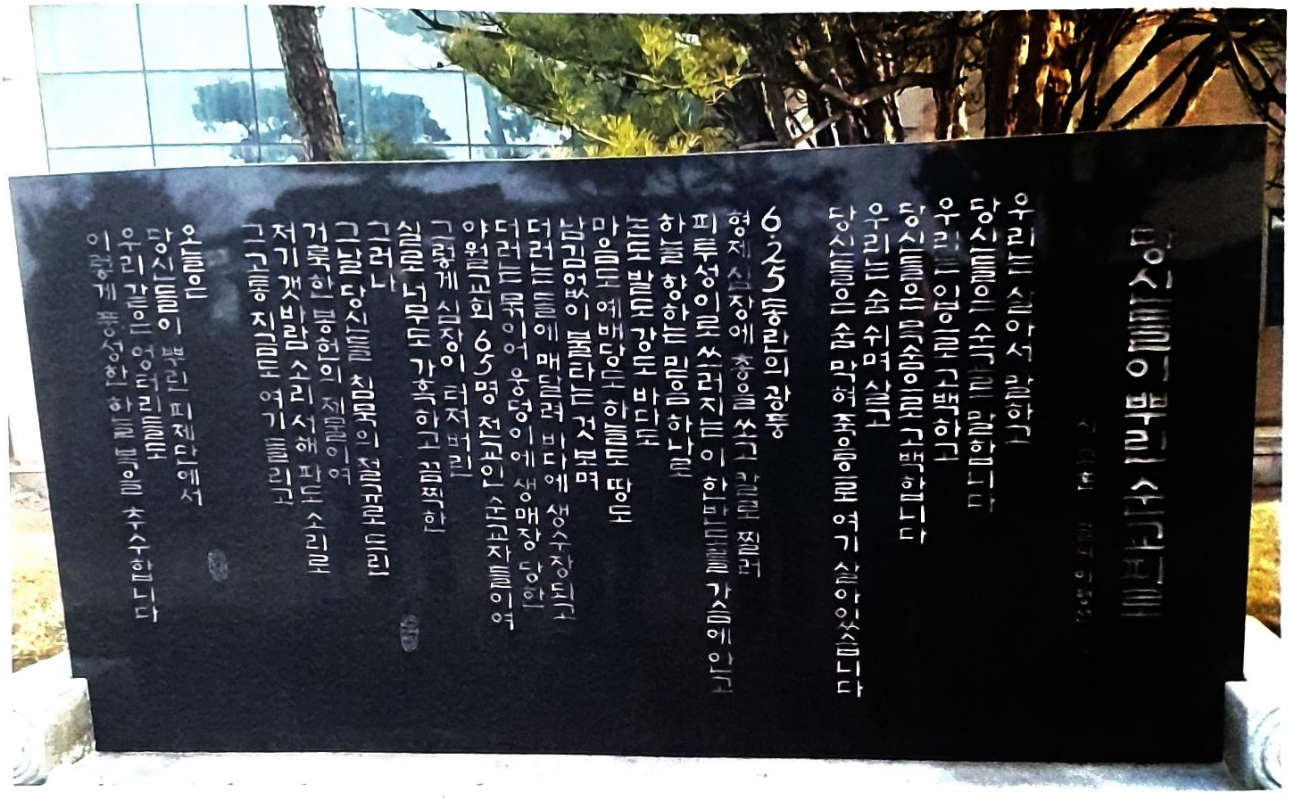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는 섬마을의 전도자이자 어머니였던 문전도사의 행적이 남겨져 있었다. 신안지역에 있는 100여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준경 전도사의 직간접 영향으로 세워졌다. 그녀의 생전에 세웠던 교회와 기도처 11곳이 바로 그 씨앗이 되었고, 정태기 목사, 김준곤 목사, 이만신 목사 등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6.25전쟁때 공산주의자들은 문전도사를 체포하여 즉결처분하지 않고 목포 정치보위부로 이송 수감했으나 목포에는 이미 국군의 상륙으로 인민군이 철수하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자신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발악하는 인민군들이 교인들을 해칠 것을 생각하여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한다."며 나섰다. 잠시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수양딸 백정희와 중동리교회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풍선(돛단배)를 타고 목양지로 돌아갔다. 며칠 뒤에만 들어갔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으나 1950년 10월5일 새벽2시경 체포되어 인민군들에게 끝내 죽임을 당했다. 새끼줄에 묶여 끌려가 발로 차이고 창에 찔리고 총대로 후려침을 당하고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죄명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



문준경전도사가 지키려 했던 중동리교회의 역사배경을 보면 일제침략시기로 일제시기 말이었던 당시 전국에는 경방단이 조직되어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진다고 설쳤다. 이들은 대부분 친일파였는데, 일본은 중동리교회를 이 지역 경방단에 1600원에 강제로 매각시켰다. 문준경 전도사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해방이 되자 성결교회는 매각된 건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중동리 사람들은 교회건물이 자신들의 건물이라고 내어 주지 않았다. 결국 법정에 가게 되었고, 법정은 교회 편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동네 청년들(과거 경방단)은 교회를 계속 점령하고 있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다시금 법정에 호소하여 교회 건물을 다시 찾아 교회는 활기를 얻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공산당들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과거 경방단 출신들이 바로 공산당들의 앞잡이가 되었다. 교회는 노동당인민위원회가 되었고, 사택은 위원장이 거주했던 것이다. 이 곳에서 문준경전도사는 순교했다.

영광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최대 순교지로서 6.25 전쟁때 77인이 순교한 교회이다. 국군이 영광에 진군해 들어왔을 때 미처 퇴각하지 못한 공산당들이 교회당을 불 지르고 교인들을 바닷가 수문통에서 돌멩이를 달아서 수장시키는가 하면, 생매장을 시키고, 죽창으로, 몽둥이로, 칼로 찌르고 때려서 죽이는 참상이 벌어졌다. 염산교회 성도들은 1950년 10월 7일부터 3개월간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데,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가 불탄 이후에도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면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갔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찬송하며,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 그들은 모두 오직 위엣 것을 바라보며 돌아갈 천국을 선택한 것이었다.

당시 담임목회자였던 김방호목사님의 가르침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성도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담임목회자이던 김방호목사님 뿐 아니라 초대교역자였던 허상전도사부부(당시 장로), 원창권 목사까지 1,2,3대 교역자가 모두 순교하는 기록을 남겼다.

천국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어린이들의 일화는 너무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10월 13일 김옥자 김금자 김신자 김미자 네 자매는 염산교회 주일학생이며 믿는 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순교현장에 끌려가는 데, 옥자는 무서워서 우는 동생들을 향하여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가고 있단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고 달랬다. 바닷가 수문통에 가서도 어린이답지 않게 침착하게 기도하며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담대한 모습에 수장을 지키는 공산당원들과 좌익세력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고 한다.

12월 4일, 11살 김조남 어린이는 광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전쟁 때문에 집에 와서 있었는데 공산당들이 할아버지인 김동근 장로와 아버지 김형호 집사를 잡으려고 집에 들이닥쳤지만 찾지 못하자 김조남 어린이를 붙잡아 다그쳤다.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곳을 대라. 안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김조남 어린이는 살기등등한 공산당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곳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화가 난 공산당원이 김조남 어린이의 입을 손으로 찢어서 죽이고 말았다. 11살 짜리 어린 소년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갔다.

이외에도 수 많이 순교의 일화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사후처리이다. 당시 담임 김방호목사의 둘째아들은 목포에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그가 모두의 만류에도 염산교회 담임으로 왔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했다. "우리는 이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여 원수를 갚자!"고 했다. 이 때 모든 성도들은 싫어했다고 한다. 그들을 죽인 그 원수들은 바로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인가? 하지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염산교회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야월교회는 전 교인 65명이 1950년 9월~10월에 걸쳐 순교당한 교회이다. 기독교대백과사전에는 "1950년 6.25사변으로 교회는 다시금 수난에 직면했는데 특히 인근지역에서 암약하던 지방 공산당들의 만행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의 전도인이던 김영갑은 피난하였고, 교회당은 공산당에게 징발당하여 교인들은 다시 지하교회의 형태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였다"며, "이에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행진을 하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미처 후퇴치 못한 공산군과 지방 공산당들은 인근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고,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들에 대한 보복계획이 추진되었다. 그 해 10월 공산당들은 야월리에 난입 교인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석유를 뿌린 채 불을 질렀다. 이때에 조양현 조숙현 영수 최판섭, 최대섭 집사 그의 여동생 최판례를 비롯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65명의 교인들이 참살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국내 순교지를 돌아보니 이곳이 바로 주님이 피흘린 발자취인 것을 알았다. 어떤 미사여구로도 이 엄청난 순교의 현장이 주는 감동을 표현할 수 없다. 그 순교의 자리에 서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울려나는 감동과 생수의 샘이 용솟음치는 듯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함께 했던 모든 목회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거룩함으로 보였다. 순교자들의 순교는 그 순교의 순간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의 평소의 천국 신앙과 절개가 그대로 순교의 자리에서 꽃을 피워낸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 낸 것이다. 그들은 바로 작은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오늘 이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감히 그들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묘사도 모방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춘천홀리클럽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춘천홀리클럽은 성시화운동을 돕기 위한 평신도선교단체로서 1996년 6월 8일 전국에서 최초로 태동되어 금년 오는 6월 8일은 창립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춘천홀리클럽을 키워 주신 어른들로는 전용태, 양인평, 조남진, 허천, 조은제, 고 이학규 장로님들이 계시고, 최근 김영명, 김용배 장로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함께 봉사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돕고 계신다.

본 홀리클럽을 위해 많은 평신도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동참하여 춘천성시화에 기여한 바 크다. 그동안 이름을 널리 알리신 목사님들과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사경회, 부흥회, 성시선교대회, 세미나, 토론회, 전도집회 등으로 춘천의 교회와 시민의 신앙과 지성을 일깨워 왔다고 자부해 본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의 시, 군 가운데 춘천만이 기독교인 수가 불교인 수를 상회한다고 하는 통계는 그간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시화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따라서 성시화운동본부에서 계획 추진 실행하고 있는 행사에 본 홀리클럽은 적극 참여 협력할 것이다. 금년에도 미자립교회 방문 후원, 중고 기독동아리 표창, 정기적인 기도회,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협력, 통일광장기도회 참여, 아버지학교 섬김, 어린이전도협회 협력, 해비타트 봉사, 홀리투어 실시, 양로원 방문예배 선교비 후원, 청정 환경사업 협력, 앞으로 연탄은행 협력, 질서 지키기 캠페인, 블레싱 춘천 참여, 춘천성시선교대회 협력 등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홀리클럽은 적극 협력 할 것이다. 특히 홀리클럽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오는 6월 8일(수) 오후 7시30분 김기원 목사(장위제일교회 원로목사)를 모시고 신성감리교회에서 기념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바 홀리회원은 적극 참여하시어 기념집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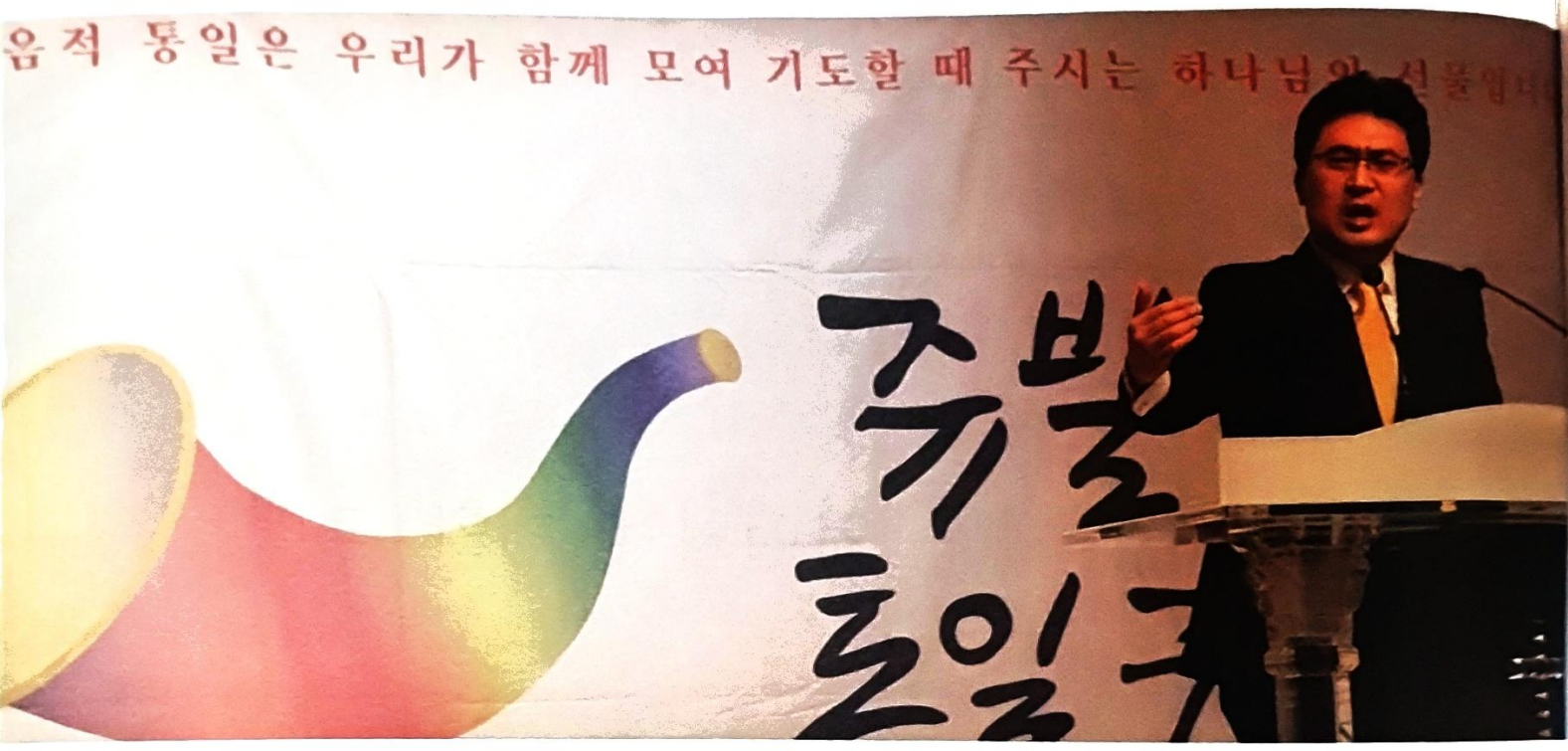
황병호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제일장로교회)



어머니에 대한 고백

복효근

때 절은 몸뻬 바지가 부끄러워
아줌마라고 부를 번했던 그 어머니가
뼈 속 절절히 아름다웠다고 느낀 것은
내가 내 딸에게
아저씨라고 불리워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질 무렵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신

고후5:20-6:2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3차 춘천모임(5월16일/주향교회)에서 선포된
최수영목사(부산 사랑이웃교회)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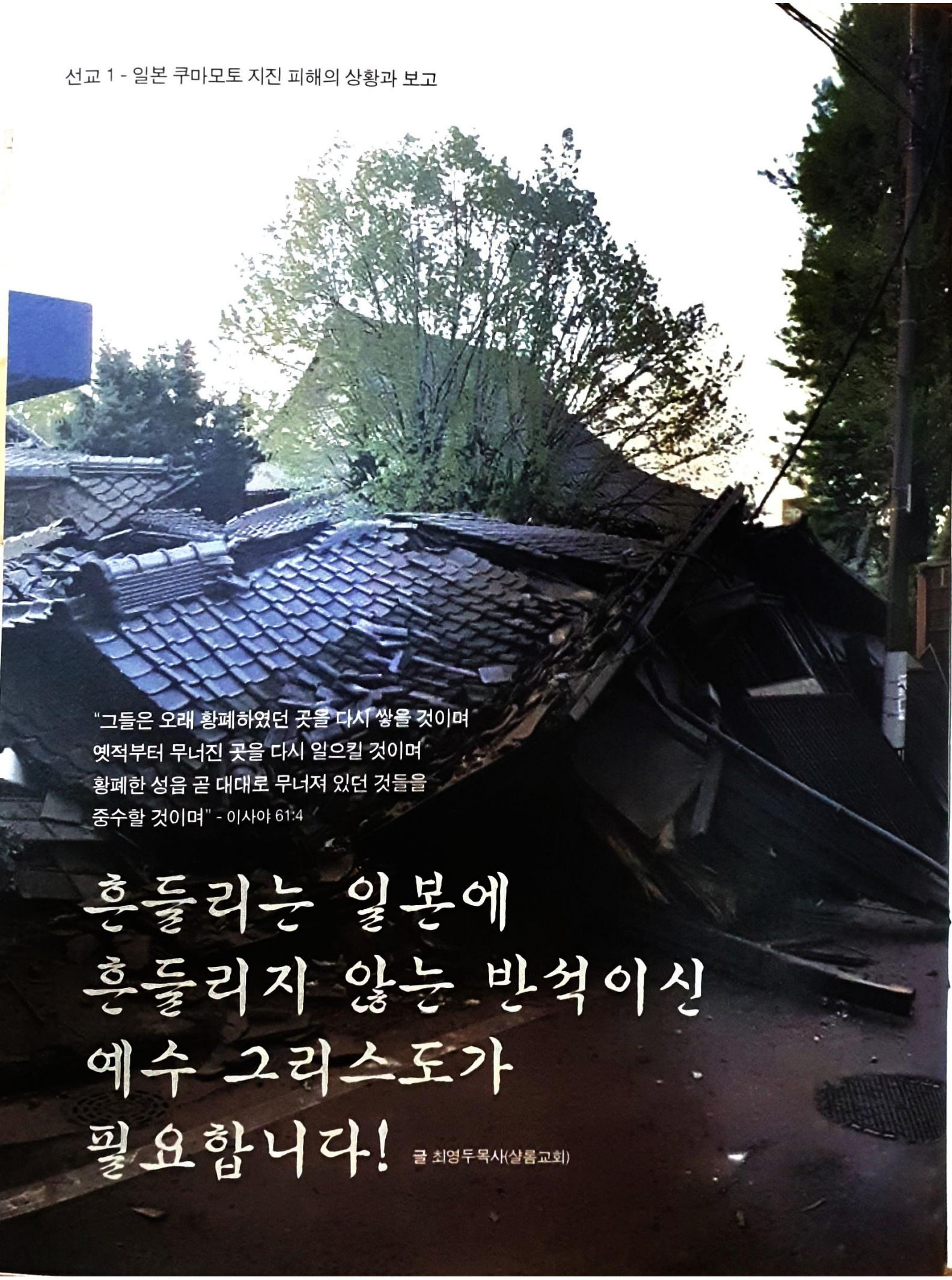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통일에 대한 빚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이다. (롬8:8-15절) 사도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 빚이 있다고 한다. 바로 복음에 대한 빚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하고 두번째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고 했다. 마치 남한의 성도는 북한의 성도들을 보면서 내 믿음은 진짜인지 점검을 하게 된다. 탈북 성도들도 남한의 성도들의 믿음과 후원과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했다. 사도바울은 초강대국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받아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왕하 7:3~20에 보면 아람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안에서 진퇴양난으로 포위되어 모든 양식이 떨어져가고 말살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앞에는 아람군대가 있고 뒤의 이스라엘 성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4명의 문둥병자는 아람사람 진영에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성문 문지기에 이르되, 자신들이 아람군대에 가니 말과 무기 그대로 있고 군사들은 없나이다 하니 ~ 백성들이 아람진에 가서 취한지라 하였다. 이 말씀에 나온 4명의 문둥병자 같은 자들이 바로 탈북민이다. 4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가 외면하고 침묵했던 그들이 통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남한에 다시한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의 거짓을 벗기고, 위선을 벗기고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본문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은 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며, ② 하나님과 화목 됨 때문이고, ③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강권하며, ④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진 후 내린 결론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자신의 유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과 성도 유익을 절대적으로 추구한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도바울은 옥중생활에서도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만큼 당당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면 반드시 위로와 책망이 있는 권면을 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면 반드시 기도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 사도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기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요구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절대절명의 권유였다. 사도바울은 두 단계의 화목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에 속하는 성화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으나 하나님의 성화가 멈추어지지는 않았는가. 한국교회는 계속 성화되어가고 있는가. 4명의 문둥병자는 탈북자일 수 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굶어 죽을 수 있었다. 한국교회에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은 성화가 멈추었다고 하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누리나 하나님안의 성화가 멈추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신다.(고후6:1) 우리의 점검이 필요하다.

글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 이사야 61:4

흔들리는 일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글 최영두목사(샬롬교회)

저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샬롬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소망은 한국과 일본의 막힌 담을 헐어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일본에 대한 소식에 민감한 편입니다. 지난 4월 14일(목) 밤, 그리고 4월 16일(토) 새벽에 일본의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7로 관측이 되는 지진이 발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이나 건물이 부서지고,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소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까 생각하며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재해를 입은 일본을 사랑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아낌없이 지원해 준 헌금을 갖고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로부터 지원받은 헌금은 SIR이라는 전략적 중보기도 네트워크의 타키모토 노조무 교수님(신시로교회)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SIR은 지진의 영향으로 도로가 가로막아져 들어가 가는 것이 곤란해진 지역이나, 지원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지역, 피해가 큰 진원지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우회도로를 사용해서 지진 직후 바로 들어가서 땅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를 하며 그리고 물자, 휘발유, 발전기, 물탱크 등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직접 구마모토현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타키모토 노조무 교수님에게 그곳의 사정을 들으면서 참 안따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진이 무서워서 밤에 건물 안에서 잘 수 없어서 차 안에서 자는 분들이 많고, 반복되는 여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안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집이 붕괴되거나 도로가 파괴 되는 것만이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진의 진원지가 된 마시키마치의 중심가에는 절망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들은 무너졌고, 밭 안에 단층이 노출되고, 거리는 아직도 혼돈 속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은 지금부터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다른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진 재해가 있었던 쿠마모토 지역에서는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큐슈 기독교 재해 지원센터를 시작했고, 계속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원지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있는 타카모리 그리스도교회는, 단단한 암반 위에 세워져 있어서 다행히 예배당의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진 재해 후에 집을 잃은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위안을 하며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들의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찾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생활 물자는 채워졌다 해도, 마음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써 도리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과 큐슈의 땅에 이런 구원의 역사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후원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연휴에는, 크리스천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들과 함께 지진 피해지역에 들어갔고, 타카모리 그리스도교회를 통해서 식사 공급이나 무료 진료 등을 하면서 그 지역을 섬겼다고 합니다. 교회의 예배당이 임시진료소가 되었고, 찾아오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와 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진찰한 후에 「제가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승낙해 주셔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의사가 진찰을 해 준 것뿐만 아니라, 기도도 받게 되서 정말로 좋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해' 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습이 강한 시골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많은 사람

일본과 구마모토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구마모토 및 큐슈 각지의 피해지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2. 더 이상 지진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3. 일본이 지진, 재해로부터 보호되도록
4. 피해자 여러분들 위에 위로, 치유, 격려가 일어나도록
5.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 지진, 전쟁, 기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6. 일본 국민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7. 일본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8. 일본의 그리스도교회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지고, 축복을 받도록
9. 일본에 복음 선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섬김이냐 갑질이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요13:5)"

사회엔 수많은 행동들이 있다. 이런 행동들 중에 사회 내의 비난거리가 된 것이 갑질이다. 갑질은 갑을관계의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던 못된 억압의 습성이다. 갑질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관계bad relation의 대명사이다.

필자는 올해에 〈정말 이 나라 개똥스러워〉라는 갑질 책을 썼다. 함께 근무하던 선배의 탄식소리를 듣고 난 이후였다. 우리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의 습성을 파헤쳐보기 위함이었다. 책을 쓰면서 놀랐던 일은 갑질이 생각보다 확산되어 있고 심각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갑질은 또 다른 형태로 둔갑하여 나타날 수 있다. 교회에선 직분자들이 있고 교회의 대소사를 처리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어도 교회 내의 권력구조가 되기도 한다.

물론 교회의 직분은 권력보다는 섬김과 봉사를 위한 사명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일부 직분자는 세력을 모으며, 섬김보다는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직분을 활용한다. 필자 또한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었다.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던 이유를 물어보면, 일부 직분자의 꼴불견스런 행동 때문이라고 한다. 뒤에서 험담과 비난을 하며 눈에 보이지 않게 상대방을 괴롭히던 행동들, 또는 사회 속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던 직분자의 행동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런 갈등현상은 섬김과 봉사의 희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선 약 2,000년 전에 천국 옥좌를 내려놓고 말구유에 오셨다. 쾌쾌하고 썩은 동물의 똥냄새가 진동하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던 저택, 또는 특급 병실이 아니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한 몸종들이 주인을 섬기던 행동이었다.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다.

예수님께선 제자들 앞에서 가장 천한 몸종만큼 스스로 낮아지셨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어렵다. 그 관계를 풀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내려놓고 낮아져 섬기는 행동이어야 한다. 모두들 떠나간 텅 빈 자리를 보며,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 교회 내의 궂은 일 천한 일을 섬기는 직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 내의 음지에서 섬기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직분자의 참된 모습일 것이다. 직분자는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스스로 낮아져, 교회 내의 작은 예수로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글 김장기 권사 (시인/작가, 춘천한길교회)

Nepal



네팔 선교보고

글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 교회)

네팔은 세계 10대 고봉 중 8개와 7,650m가 넘는 봉우리 50개 넘게 존재하는 나라로 인구는 2,952만 명이고,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80%가 농촌에 거주합니다. 기독교인은 2%가 안 됩니다. 작년 4월 25일 11시 56분에 7.8의 대지진의 발생으로 8,000명이 사망하고 16,0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정확한 사망자의 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0일 신헌법 공포 후 인도 국경의 마데시 주에서 불만을 품고 과격 시위에 나서 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도는 이것을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고 기름과 가스를 보내지 않아서 네팔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되었고 관광객(등산, 트레킹)등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살프메시 교회를, 그리고 이번에 디달록 교회를 헌당하게(광염교회의 창립 감사헌금 지원으로; 박인관 목사) 되었으며, 전도자 소형제의 집이 워낙 낡고 부실하여 지금 사택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네팔 카트만두에 신학교를 시작하여 2주간씩 4번의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에 남춘천 교회 박종식 목사가 강의 차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1주간 카트만두에서 그리고 1주간 남쪽 교회를 돌아보며 집회와 선교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협력해 주신 개인과 교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의 중요 일정과 선교 일기 몇 편을 올립니다.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카트만두는 고산분지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도 인근에 강이 없다.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4시간 이상 달려서 작년 지진으로 복구된 두리겔 산촌을 넘어서 조달 갓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곳에는 순꼬시 강이 흐르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강가에서 나지브 선교사가 신앙고백을 받고 우리 세 사람은 강물 속에서 대기를 하였는데 물살이 여간 센 것이 아니다. 한 사람씩 세례식을 하는데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지브가 성삼위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우리가 물에 수장을 시켰다가 살려내는 일을 하였다. 그래서 네 사람의 새 생명이 출생하였다, 이름은 16세의 '자비가' 17세의 '룻' 24세의 '보빗라', 그리고 남자인 16세의 '라스구만' 이다. 세례식이 끝나고 그곳 현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오후 3시가 넘고 있었다.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길은 무수한 자동차와 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공항에 들려서 비하르 파트나에서 사역하는 이상용 선교사를 만났다. 비자 여행을 이곳으로 들어 온 것이다. 오다가 나지브 선교사가 임대한 교회부지에 갔다, 주택가 안에 위치한 300평의 땅인데 여기에 100평의 예배 처와 부속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계획이란다.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도 또 식당에 들려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와서 잠시 내일 일정을 나누고 헤어졌다. 꽉 찬 하루였다.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디달톡 교회는 10년 전에 소바르 다망 형제가 개척을 한 교회이다. 현재 교인은 60여명이 된다. 1년 전



일 정 : 2016년 4월 18일(월)-30일(토)

인 원 : 목회자 4명과 청년1명 계5명

(남쪽은 현지 사역자 2명 동행하여 7명)

월(18일) : 인천공항-카트만두(7시간)

화(19일) : 두리엘의 조달갓 강(세례4명)

수(20일) : 디달톡교회 헌당예배

목(21일) : 디달톡교회 집회와 전도자와 집사 임직

금(22일) : 시발푸리 국립공원의 나갈 준 산행

토(23일) : 선교교회 예배와 전도자 임직

주일(24) : 오전/ 디달톡 교회와 오후 바랏 형제의 가정교회 예배인도

오후/ 남쪽으로 출발 pm 3시-11시(카트만두-서우라 라스둥가-치투원)

월(25일) : 러더허리(여호와이래교회 방문)-나렌갓에서 숙박

화(26일) : 도농 칼리카따의 교회에서 집회

수(27일) : 룸비니 방문(석가의 출생지)

목(28일) : 카트만두로 돌아옴. 귀국 준비

금(29일) : 네팔 pm 8시 30분 출발

토(30일) : 인천 am 5시30분 도착



네팔 대 지진으로 교회의 벽이 금이 가고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데 춘천광염교회 창립주일 헌금과 땅끝선교회가 함께 해서 교회를 새로 지어서 오늘 헌당식을 하는 날이다. 그리고 사역자 소전도자의 집이 너무 허술하여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 우리가 도착하니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건물 밖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린 후 머릿돌 현판식과 테이프를 자르고, 교회 현관문을 열쇠로 여는 순서를 진행하고, 우리 모두 예배당으로 입장을 하여서, 헌당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다. 전도자 사택은 방 둘과 거실로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튼튼하게 짓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믿음도 이렇게 새롭게 지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오늘은 복되고 감사한 헌당식 날이다.

2016년 4월 26일(화요일)

오늘은 칼리카따라는 산속 교회로 간다. 낮은 너무 더워서 오전 7시 30분 쯤 두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한단다. 길을 안내 하려고 사역자 선드라(40세)가 어제 나와 우리를 안내했다. 산으로 집이들고 나니 민지 가득한 길이 시작된다. 먼지가 밀가루처럼 길에 깔려서 차는 아슬아슬하게 산길을 굽이쳐 오른다. 9Km 길이라는데 1시간 가까이 산을 넘고 돌고 오르고 하니 드디어 마을이 보인다. 그리고 산속에 이런 지역이 있나 싶은 곳이 나온다. 깊은 계곡 속에서 강이 흐르고 있었다. 차는 더 갈 수 없어서 우리는 내려서 걷기 시작했다. 강 아래로 내려서 강을 가로지른 4-500m 가까이 되는 철다리를 건너니까 또 새로운 길이 나온다. 조그마한 교회인 여기가 깔리 까띠



교회란다. 이 산 넘어 2시간 가는 곳에 인도 사람이 개척을 하였는데 이곳 마을은 3년 전에 산드라가 시작한 곳이란다. 준비해 간 성찬기 세트를 선물로 증정하고 내가 첫 설교를 하고 박목사 주정철 전도자 순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니 점심때가 되었다. 이들이 닭 수프에 밥을 해왔다. 조금씩 먹고 우리는 길을 나섰다. 태양은 머리위에서 작열한다. 우리 5섯은 오다가 강에서 몸을 담그기로 하고 들어갔다. 무서운 기세로 물은 흐르고 한 30분 몸을 식히고 나오다보니 옷을 벗어둔 곳이 화장을 했던 곳이라 뼈들이 보인다. 차가 있는 곳으로 올라 와서 나지브가 가계의 여성을 전도하고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영접기도를 하였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후기

네팔 남쪽으로 한 주간 다녔는데 한번은 수박을 사서 숙소로 가지고 와서 보니 전혀 안 익어 먹지 못하고 버렸다. 그래 우리는 현장 박치기하기로 하고 수입품 큰 칼을 하나 샀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수박을 만나면 다 내려서 그 자리에서 두 동강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나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수박. 오이. 청포도. 사과. 사탕수수대궁 물도 먹고, 현지 라면을 사서 끓여 먹고. 계란도 한판 사서 삶아 먹고 그리고 닭을 사서 잡아서 마늘. 생강. 양파 까서 넣고 백숙(길가의 집에서 찜통 빌림)을 해서 4마리나 잡아먹었다. 또 한곳 숙소에서는 그물 빌려 강에서 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서 밤12시에 해먹었다. 내가 생각해도 탁월한 적응력이었다. 물론 2명이 배탈이 나서 약을 먹어 가며 다녔지만 말이다. 우리는 어떤 악 조건 속에서도 은혜롭게 전진했다. 6명의 사역자와 교회를 방문하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 무엇보다 네팔을 좀 더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지 사역자가 2명이 따라 갔는데 칼을 가지고 다니며 원시적인 현지 적응 능력의 한국 사람들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우리는 진짜 칼과 말씀의 칼을 동시에 가지고 네팔 남쪽을 달리고 산 속에 들어갔다. "검이 없는 자는 겉 옷을 팔아 살지어다."(눅 22:36절)

제21회 음악과 강연의 밤
"강균성 토크콘서트" 스케치

매년 5월이면 개최되는 음악과 강연의 밤이 올해에도 강원대 기독교수선교회 주최, 기독교 선교단체 연합 주관으로 5월 17일(화) 저녁7시에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올해에는 그룹 노을의 멤버이고 혼전순결을 주창하며 의식있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 강균성 가수가 초청되어 주강사로 무대에 올랐다. 강균성은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그러나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갔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젊은 대학생 시절 고민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소탈하게 나누며,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나타냈다.



강균성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저를 통해 이 시간에 전달되어 한 사람이라도 심령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이야기를 열었다.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지탱했던 20대의 힘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기에 따라갔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교회는 갔지만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가수의 꿈을 중2때부터 가졌는데,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때 한 기획사와 연결되어 연습생이 되었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연습을 했기에 학교도 휴학을 하고 교회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가수로 데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20대인 저는 회사 탓 환경 탓을 많이 했습니다. 정식 가수가 되고 활동도 했지만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정에서는 엄마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날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뭐니? 네가 잘되어야 영광 받고, 잘 안되면 영광 못 받는 거니?"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단지 세상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연예인이 전한 복음, 자신의 죄인됨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성경말씀을 근거로 차근 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과 맞바꾸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돈 많이 벌고 인기를 많이 얻는 것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남들만큼 잘 하지 못해도 잘 못 벌어도 그것이 내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한 분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돌아보니, 1집에서 잘되었으면 교만해서 내가 잘 나서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통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내가 변화된 후 쓰는 노래들을 통해 힐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나를 만드셔서 문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의 가치관이 바뀌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면 그것이 사라질 때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소망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를 써 가실 것입니다."

글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신천지와의 싸움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4월 신천지측이 강원CBS 사옥 앞에 와서 대규모 시위를 할 때 들었던 느낌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저런 젊은이들이 어찌다가 신천지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 불쌍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당시 시위대의 90%가 20대 청년들이었고, 이는 신천지가 이 사회에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글 나이일 본부장(강원 CBS)



이단들이 많고 많지만, CBS가 특별히 신천지에 주목한 것은 신천지의 반사회적 폐해가 어느 사이비 집단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신도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가면 "신인합일 영생불사"한다는 엉터리 교리에 빠져 가출하고 학업과 직장, 가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신천지에 바치는 폐해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속여 '거짓말'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남을 속여서라도 데려오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 집단'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는 심각합니다. 신천지는 젊은이들에게 "부모에게도 마귀 사탄이 들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사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 상담과정에서 자기의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른, 신천지에 빠진 딸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딸에게서 '아줌마'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암투병 중인 엄마를 위로하기는커녕 감금 폭행죄로 고소한 딸도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채소장사하며 두 딸을 키운 한 엄마는 딸들이 신천지에 빠지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이혼과 가출, 법정 싸움 등 신천지로 인해 가족관계가 깨진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반사회적 집단,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종교단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교리가 있고 집회가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으니 형식은 종교단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건부 종말론을 앞세운 다단계 사기집단' 같습니다.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신천지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조건부종말론에, 자기 바로 윗사람으로부터 모든 사항을 지시받고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다단계와 비슷합니다. '사기집단'이라는 규정은 법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거짓 환상에 빠뜨리고, 신도들에게는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치면서 지도부는 교주 이만희의 후계자를 내정하는 등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천지는 CBS가 "허위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CBS가 지난 2012년부터 신천지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태를 고발한 보도에 대해 법원은 "진실한 사실과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CBS가 신천지측을 가정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사회적 반

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것은 신천지측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것입니다. 결국 법원도 신천지측을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고 보도한 CBS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신천지 내부에서 교리와 조직 운영, 외부 시선 등으로 인해 흔들리는 신도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CBS가 보도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작 다큐의 영향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천지측은 아무 것도 모르는, 자신들에게 완전히 쇠뇌당한 신도들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와 CBS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 단속과 결속을 위한 시위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시위가 어떤 목적으로 열렸든, 시위대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사교집단에 발을 들여놨으니 자기책임이다 알아서 해라 라고 포기해버리고 말까요? 그러기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아깝고 불쌍합니다.

신천지와의 싸움은 한 교회가, 또는 어떤 한 언론사가 벌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말씀 공부 제대로 시키고 교인들 양육 잘 하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가정에서 아이들 바르게 키우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고, 어른은 어른대로 주변의 젊은이들을 살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훈육하는 그런 접근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신천지 같은 사기집단은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신천지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강원 CBS 나이영 본부장

강원CBS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원지역 대학가에 뿌릴 소책자를 마련했습니다. 교리나 딱딱한 논쟁보다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신천지 접근법'을 소개한 작은 유인물입니다. "이런 제안 받아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신천지측이 포교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무심결에 응대해주다가 당신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안내하는 소책자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 20만부 정도를 찍어 춘천과 원주 등 강원 영서지역 전체 대학생들에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춘천지역 교회에도 약 3만부 이상을 전달했습니다만, 혹시 더 필요하신 교회나 개인이 있으시면, 또는 대학가에서 이를 배포하기 원하는 분 있으시면 강원CB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신천지 같은 사교집단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젊은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소놀이 Seesaw

1898년作

멋진 작품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예비신부는 "사랑이지요." 목사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친 병사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라고 대답했다.
순간 화가는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한데 모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았다. 그 방법을 곰곰히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매우 놀랐다. 바로,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아내의 눈에서는 사랑을 보았으며,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을 완성했다.

프레데릭 모건 Frederick Morgan

19세기 영국의 화가(1847년 ~ 1927년)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일상의 소박한 풍경을 즐겨 그려 대중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어떻게 다른가?"

글 이동주 교수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하나님"에 관해서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꾸란 4:171).

위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아랍어 원어 "thalathatu"(셋)라고 쓰여 있다. 원래 '삼위일체'라는 말은 꾸란 원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다. 위 번역 구절은 "...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 분이라고 말하지 말라"로 번역되어야 한다. 꾸란은 한편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들의 "알라"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삼위일체론을 반박하고 있다. 이슬람의 기본신앙 제1조

왜 '이슬람' 이라는 종교는 자기의 독특한 신관을 가지지 못하고 기독교의 신관과 기독론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바로 이점이 이슬람교가 불교 이단이나 힌두교 이단이 아닌 "기독교 이단" 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는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습니다"이다. 무슬림들은 그 뜻을 아래와 같이 풀이한다: 하나님은 동반자가 없으며, 하나님은 자식을 생산하지도 않으며, 생산되지도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누어져서 땅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다른 분이 또 있을 수 없고..." 이와 같이 이슬람은 신론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철저하게 삼신(三神)으로 왜곡하고 거부한다.(이슬람 교리문답』무함맏 압둘 아렘 시디끼, 하지 사브리 역, 이슬람 선교성, 트리폴리, 주한리비아 국민사무소, 1983).

그런데 왜 '이슬람' 이라는 종교는 자기의 독특한 신관을 가지지 못하고 기독교의 신관과 기독론을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바로 이점이 이슬람교가 불교 이단이나 힌두교 이단이 아닌 "기독교 이단" 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우주 창조자시며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자기구별"(자기 분리가 아님)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이란 이렇게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Gott für uns)의 체험으로 인해 이해되어진 고백이다. 니케아와(325) 콘스탄티노플에서(381)에서 열린 총회는 그들이 채택한 신론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현재하시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Lohse, B., Epochen der Dogmengeschichte, Stuttgart, 1974, 72).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계시는 로제(Lohse)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처녀잉태 만이 아니라)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고, 구약의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의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는 단일신적 유일신이다. 꾸란 8:39의 내용은 반 기독교적인 의미로 알라 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성전하라! . . .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꾸란 8:39).

구원을 이루셨으며,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수난 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그 속죄함 때문에 우리는 구약 요엘 3:28-29에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성령님을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줄 알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나 삼위가 구별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유일신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빌려 주시며 사용하게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어로 단수명사와 단수동사로 기록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한 것을 받고 기뻐하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한복음 16:24)고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2:38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요한복음 1:12, 3:16).

꾸란도 인간창조를 서술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에게 다가온 적도 없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한 것도 없고 사랑을 베푼 적도 없다. 꾸란 96:2은 인간을 응혈로 창조했다고 하고, 꾸란 6:2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꾸란 32:8-9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창조한 후 그분의 영혼을 불어넣고 청각 시각 심장을 주었다고 하고, 꾸란 18:37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후 정액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했다고 하고, 꾸란 23:12-14엔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이슬람교는 또한 꾸란을 통해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흔적을 도말하려고 했다.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한다

를 한 방울의 정액으로써 안정된 곳(자궁)에 두었다가 그 정액을 응혈시키고 그 응혈로써 살을 만들고 살로써 그 뼈를 감싸게 한 후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는 단일신적 유일신이다. 꾸란 8:39의 내용은 반 기독교적인 의미로 알라 외에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때까지 성전하라!고 하며, 알라는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꾸란 8:39). 그 각주 39-1에는 ... 알라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성전하라!고 해설한다.

꾸란은 인간의 죄악을 저울에 달아서 선행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천국으로 보낸다고 한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계산하리니 계산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꾸란 21:47). 알라는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여 50% 미만의 악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신이다. 이슬람의 행동강령인 '5주'에 기록되지는 않은 여섯 번째 항목은 무슬림 남성들의 선교 의무다: 모든 무슬림은 알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모든 무기로 모든 비무슬림과 싸울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또한 꾸란을 통해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흔적을 도말하려고 했다. 꾸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Sura 4:157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정한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그러나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고 말씀하심과 같다.

PRAYING
WITH
FAITH
FOR
OUR MUSLIM
FRIENDS
AND
NEIGHBOURS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무슬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다

주지현 옮김 | 국판 48면 | 2,500원



2016 기도를 통한 무슬림 사랑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016. 06. 06 ~ 07. 05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무슬림들이 거룩한 달로 지키는 라마단 기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슬림 세계의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기도의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끌어안는 귀한 중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30일 기도 운동 참여 문의

기도 운동 참여나 기도 책자 구매는 예수전도단 각 지부로 문의해 주세요.

광주지부 010-5891-2245
대구지부 053-422-5375
대전지부 042-636-9808
목포지부 061-245-5960
부산지부 070-7585-8379

서울지부 02-873-4192
수원지부 031-295-2021
울산지부 070-7596-7944
원주지부 070-8621-3252
인천지부 032-362-2295

전북지부 063-286-3927
제주지부 010-4937-9504
제주열방대학 064-780-2614
진주개척팀 070-4176-7438
창원지부 070-7596-7951

천안지부 041-554-1098
청주지부 043-231-7616
춘천지부 033-252-1128
포항지부 010-9772-7070

예수전도단 선교본부 http://www.gmk.or.kr

올해로 24년을 맞이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은 1992년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중동에 모여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단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무슬림 세계를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기도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현재는 시리아 내전과 이에 따른 난민들의 소식,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는 무슬림의 테러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은 어린이, 여성, 소수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무슬림들을 바라봅시다.

2016년 라마단 기간은 6월 6일 부터 7월 5일까지 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제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약 16억의 무슬림이 구원 받고 하나님이 섬기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분별하고 무슬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 될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무슬림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 - 1993년 이후 지속되어 온 사역

무슬림 세계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마다 변하지만, 무슬림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 운동의 목표는 늘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며 기도할 수 있게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슬림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전 세계 무슬림들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2016 기도를 통한 무슬림 사랑, 함께 기도해주세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 2016. 06. 06 ~ 07. 05 -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6 새로운 운동을 위한 새로운 방식 위해 기도하자	7 북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8 모리타니의 마우레스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	9 서아프리카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10 서아프리카의 소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자	11 동아프리카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12 아파르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	13 이슬람의 영적 중심부인 아랍권을 위해 기도하자	14 제국에서 혼돈의 땅으로 변한 이라크를 위해 기도하자	15 투르키스탄을 위해 기도하자	16 난민들의 교두보인 터키를 위해 기도하자	17 페르시아권을 위해 기도하자	18 타지키스탄을 위해 기도하자
19 남아시아 서부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20 데오반드와 데오반드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자	21 남아시아 동부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22 인도 비하르를 위해 기도하자	23 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 권을 위해 기도하자	24 메란타우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25 캄보디아 서부의 참족을 위해 기도하자
26 무슬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믿음을 여정을 위해 기도하자	27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자 갈망하는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자	28 극단주의에 대항하여 서있는 영국의 루턴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29 세계의 관문인 미국과 미국의 이주민을 위해 기도하자	30 난민-로힝야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	7/1 난민-시리아 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2 까드르의 밤을 위해 기도하자
3 난민-이다 난민촌을 위해 기도하자	4 복음 전파의 다리역할인 무슬림 관용구 번역을 위해 기도하자	5 기독교 건물이 아니라, 복음의 바이러스성 전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기도의 권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은 무슬림 세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눈으로 무슬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느꼈던 몇몇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자들 역시 이러한 영적 감동으로 기도하고, 무슬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교육

무슬림 세계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기도 운동 국제본부는 무슬림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애쓰면서 무슬림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30일 기도 운동 국제본부는 무슬림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무슬림에게 직접 들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독자들이 무슬림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신학을 잘 가늠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가능성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무슬림들과 동일시하며 기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무슬림들은 이 기간 동안 신과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신의 길을 좀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서 무슬림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보고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은 또한 무슬림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신이 기도를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 윤진원 간사 (예수전도단)

※ **출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국제본부에서 매년 기도책자를 출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YWAM)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과 기사내용은 책자의 내용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 **구체적인 기도를 위한 기도책자 구입 문의**

가격: 1권당 2,500원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윤진원 간사(010-9247-2335)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진 다음 세대

사사기 2장10절, 사도행전 2장16~17절

북한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3대 독재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 세대의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탁아소에서 맡겨져 혁명 사상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선생에게 철저한 쇠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이런 철저한 쇠뇌 교육은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알카에다나 IS,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사람을 비인격화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동력을 삼는데, 이것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딜루션이라고 한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결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사기의 교훈

삿2:10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고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 세대이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쟁이다. 우상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다. 세속에 물들어버린 것이다.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다른 세대를 만들어 버렸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였어도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정복하게 다스려야 할 땅에서 지배를 당하

는 비참한 시간들을 반복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 역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다! 사단은 다음 세대를 잡고자 한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도행전의 교훈

행2:16~17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자녀들은 어리고, 청년들은 미숙하고, 노인들은 힘이 없다. 즉 쓰임 받거나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다 소중하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특별히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에는 미래를 내다본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자녀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들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예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기성세대가 아무리 많은 신앙적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다름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는 단단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키워야 한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세대가 될 것이다.

사44:3,4에서는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은 쥬빌리(회복)의 해이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회복이 이뤄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에 몰입하는 헌신을 통해 조상들의 꿈을 이루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기성세대의 헌신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문을 열어가도록 만든다. 다음 세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두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글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전철 전도와 병원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발로 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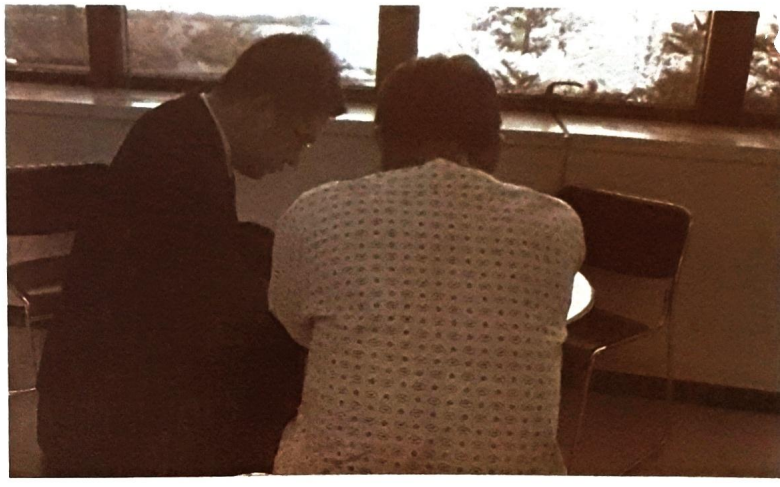
전도목사 이정하 목사 (순복음제자교회)

취재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이정하 목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전철과 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정하목사의 전도의 열정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병원 전도를 오랫동안 꾸준히 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얼마 동안이나,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병원전도를 하게 된 것은 교회 창립 후부터니까 1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월, 화, 목에 걸쳐서 3일씩 해 오고 있습니다. 병원전도도 일반적으로 큰 교회 성도들이 주로 하는데 대부분 낮에 전도지를 전달하는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하는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한 후 저녁 7시 이후부터 입니다. 이때는 환자분들이 뭔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먼저 환자분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환자들 중에는 목사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을 주로 전도 대상자로 삼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에 짧게 하지 않고 인생을 담아서 합니다. 기도 안에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기도를 받으면서 울컥 울컥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왜 힘든가? 그것은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앉은뱅이를 고치셨고, 눈 먼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셔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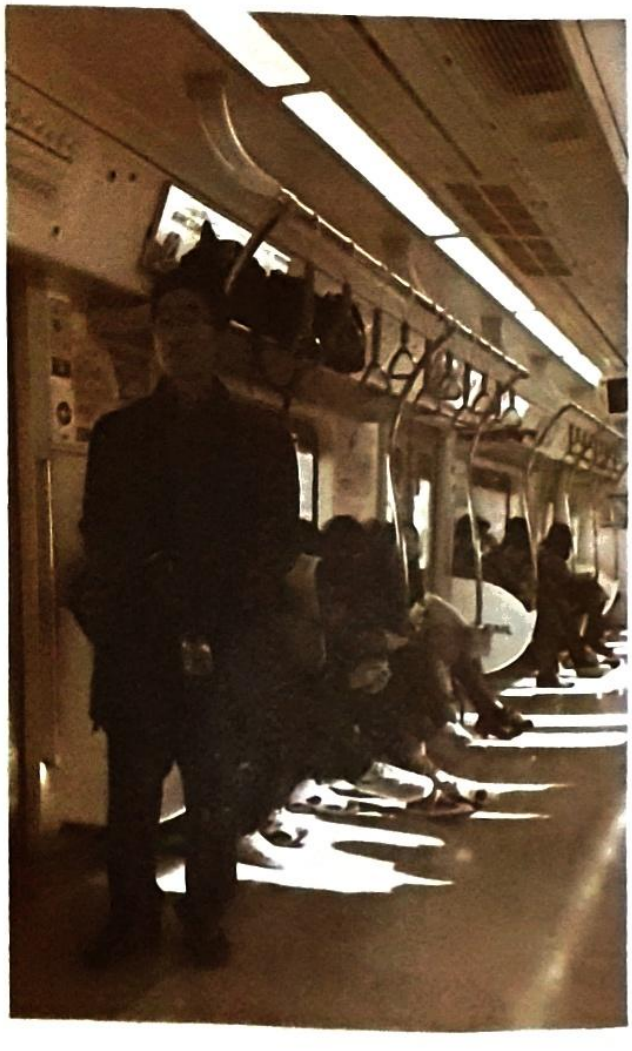
도 받은 사람들은 십중팔구 이미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전도를 하다보면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10분, 어떤 경우에는 20분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한 것이 벌써 15년이 흘러서 대략 700명 정도 환자들이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일주일에 월, 화, 목 3일이나 병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철 전도까지 하게 되셨나요?

제가 2011년 어느 날 서울에서 춘천으로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미 병원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철에서 전도하라는 감동에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대상에 무릎 꿇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희망'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살라!" 라는 메시지를 갖고 매주 화요일마다 경춘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보면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기 쉬운데 저는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대략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순복음제자교회를 담임하는 이정하목사입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이자, 남편이자, 사위이자 아들로서 감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도 다가옵니다.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그 고난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서웠던 겨울추위도 지나갔고 비바람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지나갑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애쓰고 힘썼는데 안 된다면 혹시 누군가의 도움의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는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지고 살다가 결국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배신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힘들면 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도 쳐 주기도 하고, 격려의 악수도 해 주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는 것이지만 거의 1천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희망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주에 천명이면 한 달이면 4천명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면 거의 4~5만 명이 됩니다. 5년 동안 했으니깐 대략 24~25만 명, 춘천 인구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셈입니다.



전철이나 병원에서 전도하다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거 같은데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철 전도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늘 갈 때 마다 영적전쟁입니다. 전철 안에는 질서 지킴이 분들, 사복철도경찰, 그리고 장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부딪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장사하는 분들이 유독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보고 장사방해 한다고 끌고 나가려고 양복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 질서지킴이분들에게 한참 동안이나 서서 혼나기도 했고, 철도경찰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한 청년이 오바이트를 했는데 전철바닥이 흔 건이 젖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칸으로 갑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토한 것을 주워 담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난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에게 두 개의 비닐을 구했고 한 남성분이 신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는 비닐을 한쪽 손에는 신문지를 가지고 다른 비닐 안에 주워 담았습니다. 다 끝나고 다른 칸으로 갔는데 어떤 모녀가 아오셨습니다. 저의 행동을 보고 오신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주의 좋은 영혼구령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식사하던 자식들을 불러서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라고 하면서 인사를 시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환자였을 때에 제가 기도를 해주셔서 병이

낫게 되었고, 다른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도 한다고 했을 때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다 우리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왔다가도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춘천성시화를 위해서,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 자긍심을 잃지 말자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전철 전도와 병원 전도를 해 오셨는데, 특별히 갖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바로 병원과 전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전철 전도를 5년 동안 하면서 거의 춘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는 다른 요일에 하루씩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철도공사와 연계한 전철 희망 광고사역, 희망 문화사역도 필요합니다. 실추하고 있는 기독교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도 춘천에만 삼백 개가 넘습니다. 연합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위한 희망치료사역을 연다면 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사역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서 각개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병원선교회와 전철선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구령입니다. 함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하는 복음 전도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또한 다른 분들의 노하우를 들으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병원이나 전철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마음을 나누면 좋겠구요. 또 새롭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교회 조직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오전11시에 후평동 주공 2단지 앞(강원대 병원에서 후평중학교 쪽으로)에 있는 순복음제자교회에서 기도모임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감동이 되시면
병원선교회와 전철선교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2240-8115 이정하 목사

예향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라

어느 젊은 사람이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자꾸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가까운 종합병원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다. 진찰결과는 위암 말기였다. 암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이제는 손 쓸 도리가 없는 지경이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바로 암 환자를 진찰하는 젊은 내과 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젊음만을 믿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암에 대한 진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많은 사람을 진찰하면서 정작 자기의 건강은 체크하지 않았다.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가?' 진찰해 보았어야 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전 13:5)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 왜 "너희"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충고는 잘한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것은 잘한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은 너무나 인색하다. 우리도 자주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여기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글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된다.
부흥이 되려면 먼저 남을 섬기고 나누며 베풀어야 한다.
내가 하는 판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한다면?

그림, 글 /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너희가 먹을 만한... 레위기 11장2절

글 신승택 원장(현대한약방, JDM 장로)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20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2:7)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창1:29)를 먹을거리로 주셔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 모든 산 동물을 식물植物로 허락하셔서 부족한 먹거리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창9:3)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하여 그 기준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분명히 기록하여 지키도록 하셨다. 동물 가운데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인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家畜을 먹거리로 허락하셨고, 동물성 지방질이 많은 돼지는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식용을 금하셨다. 어류 중에서도 깨끗한 물에서 좋은 먹이를 먹고사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허용하신 반면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즐겨먹는 뱀장어, 미꾸라지 같은 비늘 없는 물고기는 식물食物로 허용하지 않으셨다. 현대 과학과 일치하는 최선의 건강식품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8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偶像崇拜에 빠져버린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 끝에 기원전 586년 멸망을 당하였으며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있었는데 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왕족과 귀족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뛰어난 젊은이들을 볼모로 데려가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쓰기 위해 삼년 과정의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다. 이 일을 위해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다. 이 때 바벨론의 식민지 동화 정책 중 하나가 교육과 창씨개명과 함께, 술과 육류로 이루어진 바벨론의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 히브리 정신의 요체가 되는 히브리인의 체질을 바벨론화 하는 것이었다. 음식이 육체의 건강은 물론 정신과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의 교화 정책에 대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대응이 참으로 탁월한 것을 보게 된다. 다니엘은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뜻을 정했고 비록 볼모로 잡혀있긴 하지만 정신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채식과 물/ 단1:12)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 150년간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코카서스, 훈자, 빌카밤바 지역이 세계 3대 장수촌으로 꼽혀왔다. 이들 장수촌 주민들의 특징은 맑고 깨끗한 공기와,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수를 마시고, 음식물은 곡식이나 채소류 중심의 검소한 식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살았다. 특히 이들 장수자들은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건전한 정신생활을 누렸고, 대부분 일생을 고향땅에서 살았던 사람들로 신체와 토양과 음식의 일치(신토불이)가 장수비결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장수자들의 건강생활도 세계 3대 장수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약초나 산나물, 곡류와 과일, 견과류와 채소가 주식으로 우리의 식탁을 지켜왔으며,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 제도와 신토불이의 삶은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

그러나 청정마을 장수촌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세계 3대 장수촌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과 함께 소위 현대문명의 검은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가공 정크 식품과 청량음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식탁이 채식에서 육류와 정크 푸드로 바뀌게 되었다. 특별히 고단백 위주의 건강식품들이 남용됨으로 인하여 심장병과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식원병食源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성인병이 증가했으며, 과축적過縮積된 고열량으로 말미암아 급하고, 이기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등 끊임없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과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육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성경에 기록된 채식과 깨끗한 물을 선택함으로 육류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바벨론 청년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용모와 윤택한 피부, 고상한 인격과 두뇌와 패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탁의 우월성을 불과 열흘 만에 증명해 보인 것이다(잠1:15). 그리고 마침내 왕의 보좌관으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렸고(단2:48), 메대의 수석총리로 천하를 호령하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친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단6:3).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곧 이어 채식을 먹거리로 주셨으며, 홍수 이후 육식을 허용하시되 원칙을 정하심으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이 먹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긴박한 문제 앞에서 뜻을 정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서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저스트 렛 고
Just Let Go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의 명제일지 모른다. 우리는 성경의 권면을 항상 내적 필연화 하지 않고 단순한 윤리강령의 하나로 안이하게 대해 오지는 않았는지 때때로 돌아보아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나약하며 결함이 많다. 그리하여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관념적 주입식으로 훈련 받아오는 것이 윤리적 강박관념으로 형성된다면 위선의 행위에 다름 아니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가 이 〈저스트 렛 고〉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는 해석이 일반적인 이 말은 '참으라' 는 뜻도 들어있다 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인내와 관용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인데 그런 교과서적인 명제를 이 영화에서 실제로 부딪히며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회사원이자 목사인 주인공 크리스 윌리엄스는 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에 충돌하여 임신 중인 아내와 11살이던 아들, 9살 딸을 비롯해 뱃속의 태아까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를 당한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미성년자로 사건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한 상태이다. 피해자인 주인공의 결정여하에 따라 3년의 소년원 구금이 될 수 있고 30년의 징역살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살아남은 두 아들과 생활하며 힘겨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의 내면과 영혼에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그를 용서하느냐 아니냐는 갈등에 서 있는데....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며 소개하는 네이버의 글이 참 인상적인데 그 일부를 소개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뒤 갑작스럽게 찾아온 모든 변화들에 주목한다.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아내의 빈자리는 모두 자신이 도맡아야만 하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평소 시끄럽고 귀찮게 여겨지던 아이들의 싸우는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멈춰버린 조용한 일상은 너무 낯설고 두려운 적막으로 뒤바뀌어 버린다. 이렇듯 소소한 일상의 변화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의 빈자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들을 섬세하게 표현해낸 연출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조용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영화는 주인공인 크리스가 왜 용기 있는 결단과 아름다운 용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과연 인간적으로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에 용서도 또한 용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한 용서는 하나의 희생이며 그러한 희생을 통한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이 영화는 어렵사리 이끌어낸다. 그래서 억지가 느껴지지 않고 참으로 진솔하고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닿아오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영화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떠나 더욱 큰 울림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종용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위해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 그것이 더욱 큰 찔림의 아픔으로 다시 느껴지게 하는 기회가 아닐까.

2012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크리스 윌리엄스의 자서전 〈렛 잇 고(Let It Go)〉를 스크린으로 옮긴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S. 클락, 패트릭 헨리 파커 두 사람이 연출하였고 한국여배우 김윤진의 출연으로 유명했던 미국드라마 〈로스트〉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았던 헨리 이안 쿠식이 크리스 목사역을 인상적으로 연기했다. 이 주제에 맞게 함축적인 포스터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평이다.

글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라면 이야기 (1)



1975년 농심 라면 등장

농심 라면의 포장지 그림은 고전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이었다. 1963년부터 시판한 닭고기 스프의 삼양라면(50원)보다 뭔가 다르게 맛있고 특히 뽀빠이 그림이 그려있던 라면 땅(20원)과자보다 면발이 딱딱하거나 굵지 않은 것이 바삭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났다. 그래서 끓여먹지 않고 그냥 부셔서 먹은 적이 많았다. 그리고 라면봉지는 버리지 않고 유리병으로 된 학교 점심 반찬통 포장지로 사용했다.

올해 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가 30년이 되었다. 이 시절 라면이란 음식은 지금처럼 간식으로 먹을 만큼 값싼 음식이 아니었다. 필자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시험 때 만 되면 여러 친구 놈들과 함께 노란 양은도시락에 찬밥을 챙기고 봉의산 중턱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을 찾아 시험공부를 했다. 사실 공부는 뒷전이고 도서관내에 있는 식당을 수시로 들렸다. 이 식당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공간이 아닌 여학생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잘하면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다는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이라 기를 쓰고 찾아갔다.

물론 필자가 다녔던 교회에 중고등부 여학생들도 많았다. 하지만 소양강 건너 시골인지라 여학생들은 전부 깔끔하지 못한 흑백사진 같은 얼굴에 비해 이곳 도서관에 여학생들의 얼굴은 총천연색 컬러이며 말소리는 돌비시스템을 갖춘 입체음향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용기 내어 찾아간 필자는 마음만 그럴 뿐 키 작고 동그란 안경에 새 가슴이이라 가슴만 콩당 거릴 뿐 용기가 없어 어느 여학생하고도 말을 나눈 적 없이 그저 도서관 광장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비둘기만 쳐다보며 애 게 비둘기를 아 다녔다. 그러던 중 이곳 시립도서관보다 과학관도서관(강원대학 옆)근처의 라면집이 더 맛있고 그곳을 찾는 여학생들은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건넨다는 소문을 듣고 또 우리들은 우루루 몰려다닌 적이 있다. 그때만 생각하면 왜 그리 유치했는지 자꾸 웃음만 나오는 것이 재미난 추억거리였고 그래도 교회에 꾸준히 나간 이유는 역시나 목사님이 끓여주시던 라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1986년 매운맛의 신라면 등장

한글을 모르는 이웃집 아이가 '포' 라면 불렀던 신라면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매울 辛' 이란 한지 이름을 사용한 라면으로 3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햄버거와 맞먹는 라면계의 절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라면, 라멘의 나라인 일본에서 한국 라면을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최고의 야식은 닭발도 아니요, 고추장에 찍어 먹었던 만두도 아닌 바로 신라면이었다. 그런데 이 신라면이 참으로 재미난 것은 주식과 간식을 오가며 중간 선상에서 조미료인 미원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라면들과는 달리 신라면은 세상의 모든 식재료와 궁합이 맞는다는 것이다. 여름철 냇가에서 천렵한 물고기를 넣으면 민물고기 매운탕라면, 바다 위 선상에서 포획한 전복, 꽃게, 오징어 등의 여러 생물들을 넣으면 해물탕 라면, 여러 종류의 소시지와 당면을 넣으면 부대찌개 라면, 심지어 스프를 봉지안의 면 위에 뿌리고 봉지 채 부셔서 흔들면 닭꼬치도 아닌 것이 아빠에겐 술안주, 자녀에겐 간식대용으로 먹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컵라면인 사각형 모양의 '도시락 면' 은 우리나라에선 그리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러시아에선 컵라면하면 곧 우리나라 '도시락면' 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아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세를 띨치던 신라면은 삼양 소고기 라면과 안성탕면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학교 구내식당에선 먹기가 힘들었다.

이곳 강원대학교에 입학 후 교내 구내식당에서의 먹은 라면은 큰 가마솥에 끓여서 인지 고등학교 주변의 음식점처럼 맛있지는 않았지만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200원이었으니 우리학년 동기(사범대학 미술교육과)들 전부에게 라면을 사준다 해도 고작 4,000원 밖에 안되다 보니 종종 사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카페에서 파는 커피 값은 보통 1,000원 정도였다)

글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G. 거슈인 (GEORGE GERSHWIN 1898-1937)
랩소디 인 블루 (RHAPSODY IN BLUE 1925년)

마침내 우리의 짧지 않은 남미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미국 엘에이LA에서의 회의와 수련회 일정과 함께 6개월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마치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THE SHOW MUST GO ON' 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음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장르인 재즈는 흔히들 흑인들의 음악처럼 생각하지만 의외로 대도시 뉴욕이나 서부 할리웃으로 오면서 백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장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남부의 전통적인 뉴 올린즈의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재즈의 음률이 전 미국에 감동주기 시작했던 어려운 시절,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계의 한 청년인 조지는 미국 현대 음악사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거머쥔 보기 드문 인재였습니다. 원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피아노 음악수업을 시킨 부모님 덕분에 클래식을 배웠으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5살부터 호텔의 피아니스트로 알바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당시 재즈계의 큰손이었던 폴 화이트만으로부터 재즈풍의 관현악곡을 의뢰받아서 5주만에 완성시킨 곡이 바로 그의 대표곡인 〈랩소디 인 블루〉였습니다. 대성공을 거둔 후에 유럽 파리로 건너가 거장 라벨에게 사사를 받으려 했을 때, 그가 '이미 당신은 일류 거쉬인인데 왜 이류 라벨이 되려고 하느냐?' 고 거절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명곡 〈파리의 미국인〉을 완성시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뮤지컬〈포기와 베스〉나 영화음악에서도 탁월한 작품을 남겼으나 편두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그는 1937년, 39세의 나이에 뇌종양으로 요절합니다.

거장 레너드 번스타인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던 뉴욕 필하모닉 오키스트라의 알버타 홀(1976년) 에서의 실황을 들으시면 현대재즈의 진수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땅에서 고전적인 재즈를 커피와 함께 별다방에서 들어보니 문득 신세계의 낯선 땅에서 마주친 다양한 군상들이 먼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온 이민자의 지친 삶을 나름대로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아메리칸이 되어갔던 세월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픔이 가득한 유월의 여름날이 속히 지나고 시원한 장대비를 맞으며, 동해의 푸르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럼 봄내의 성시 가족들과 모두에게 그리움을 보내며… 시애틀에서 다니 올림

글 김금찬 선교사(JDM)

2016 Summer

주니어 쥬빌리 청소년 통일캠프

"앉은뱅이였던 자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행전 3장 8절

DOWNLOAD 은혜 PLAY 통일



2016. 7. 25(월) ~ 28(목)

한동대학교

선착순 1,000명

회비 3박4일 75,000원

(조기등록 시 할인혜택 문의)



다니엘김 선교사



김성원 목사



신상태 선교사



J.W.M.

** 탈북청소년 및 미자립교회는 참가비 일부 지원됩니다. 문의해주세요.

JJ 캠프 설명회 요청 또는 참가 문의

010-8505-3975(윤성종 목사), 010-4458-0100(백형열 목사)

010-3891-1027(조희조 목사), 070-4069-0678(쥬빌리 사무국)

홈페이지 www.jubileeuni.com (참가신청 작성 및 문의 게시판)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9947-9631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히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0-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⑥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안내

· 일시 : 월~금, 9시~18시, 토요일 9시~13시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층 어린이도서관

· 내용 : 어린이 대상 다양한 도서구비 및 독서 및 기타 프로그램 진행

☎033)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⑦ 월드비전 누리꿈터(청소년 공부방)

· 내용 : 수준별 학습지도(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검사, 진로관련 활동, 문화 활동(영화관람, 대학교탐방 등)

· 일시 : 월~금, 오후17시30분~19시30분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청소년 공부방 교실

· 대상 : 중학교 1~2학년(저소득 청소년) · 기타 : 귀가 차량운행 실시, 수업료 무료

☎033)254-7244(내선3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⑧ 6월 통일기도모임 안내

· 화요통일기도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4시 / 장소 : 주향교회 / 문의 : 010-3258-8732 (이은정권사)

·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54차 춘천모임

일시 : 6월13일(월) 저녁7시15분 / 장소 : 주향교회

강사 : "평화한국 세이레 평화기도회" / 문의 : 010-6254-3162 (이병철목사)

· 쥬빌리 통일컨퍼런스

일시 : 6월24일(금)~26일(주일) / 장소 : 주향교회 / 문의 : 010-6258-3162 (이병철목사)

· 통일광장기도회

일시 : 6월27일(월) 저녁8시 / 장소 : 석사교 하천무대 / 문의 : 010-4299-0191 (김수복목사)

♥ 알림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춘천운전기사선교회 "어르신 나들이 초청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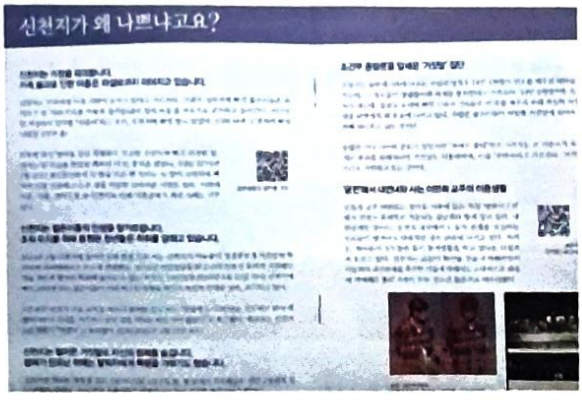
지난 5월 29일(금) 오전10시 송암경기장에서는 춘천운전기사선교회(박무영회장) 주최로 "어르신 나들이 초청 행사"를 가졌다. 춘천운전기사선교회 회원은 어르신 나들이 초청행사를 매년 열고 있는데, 이 날은 22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양지마을과 지내리 어르신들 50여분을 초청해 난타팀, 민요공연(순복음제일교회), 워십팀(순복음춘천교회), 섹소폰 공연(춘천제일감리교회)을 했다. 공연 후에는 강변도로 산책과 서면 드라이브로 어르신들을 섬겼다. 생의 마감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여 시작하였는데 어르신들께서 산책을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즐겁게 해오고 있다고 박무영장로(춘천운전기사선교회 회장)이 전했다.

한국미술인선교회의 특별한 모임



5월 16일(월)에는 한국미술인선교회(김용숙회장) 회원들의 특별한 모임이 한울섬김교회(노에녹목사)에서 있었다. 제24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춘천성시 3월호부터 표지 작품을 주시는 김용성작가와 김용숙회장, 신혜정 사역국장을 비롯 20여명의 한국기독미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미술인선교회는 매년 선교지에 자비량 선교를 가는데, 벽화그리기와 작품을 통한 복음전도를 수년간 진행해 오고 있고, 올해 12월에도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고 김용숙회장이 전했다.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은 1차 예선 작품 접수를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국내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작품내용의 주제는 자유롭게 하되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작품은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등을 접수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원지역의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신혜정 사무국장이 전했다. 문의는 010-7395-5515(신혜정 사역국장)으로 하면 된다.

이단척결주일



춘천시기독교연합회와 강원CBS방송은 5월 29일(주일)을 이단척결주일로 선포하고, 각 교회에 공문과 함께 영상을 제공하고, CBS방송국에서 제작한 "이런 제안 받아보셨나요?"라는 책자를 배부하였다. CBS방송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방영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됨을 확실히 드러내는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신천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런 일들로 신천지는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 진행한 듯 한 5월 한 달 간 전국 CBS방송국 앞에서 짜여진 시위를 했다. 진리가 진리되는 일에 한국교회는 물론 춘천교회와 성도들도 협력하며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춘천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목사)가 5월 23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열렸다. 이 날은 김종호목사(효자감리교회)께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한반도의 복음적 평화통일과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촌정보통신학교 어버이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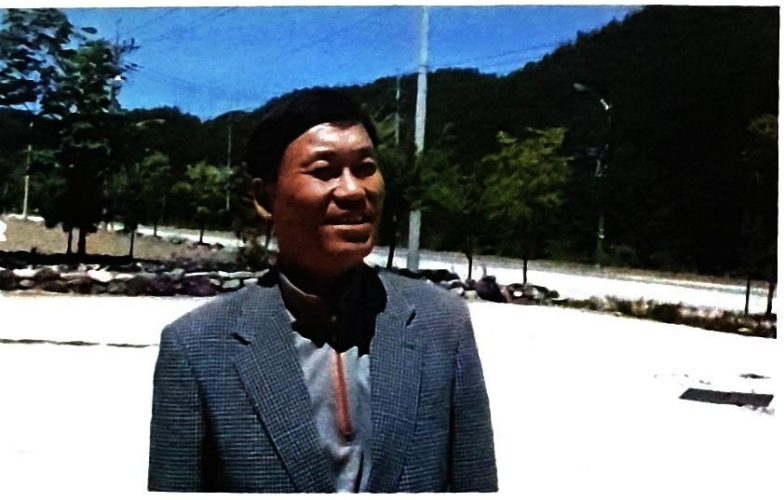
지난 5월 17일(토) 오전 11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에서는 소망선교회(윤선애집사) 주관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 이 날은 서울온누리교회 포에버 실버성가대의 공연예배로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특별히 신촌정보통신학교내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실버 성가대원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에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소망선교회는 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의미를 간직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획하였다고 한다.

신촌정보통신학교 퇴소식 예배

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는 퇴소식 예배를 5월 30일(월) 오전11시30분에 가졌다. 이 날은 퇴소식 예배에는 최영두목사(샬롬교회)의 인도로 찬양과 말씀선포, 세례식이 이어졌다. 퇴소식 예배는 매주 1회 갖고 있는데, 매월 넷째 주에는 서울 온누리교회 선교사역팀원들이 학생들에게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고 있다. 퇴소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학생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소망선교회에서는 전했다.

강원 "산소도시 – 태백"에 성시화운동이 시작되다

태백성시화운동의 태동기



2015년 겨울, 태백장로교회 대예배 후에 이강선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목사님, 2016년에는 태백성시화운동본부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던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면 준비할 분들을 소개시켜주셨다. 춘천에 계시는 김영명 장로님께서 성시화 관련 자료 를 흔쾌히 챙겨 주셨고 강원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부회장인 김준식 장로님께서 그 자료를 받아 태백까지 가져다 주셨다.

2015. 12. 29.(화) 저녁 7시 카페 '다님길' 에서 이강선 목사님, 탁원석 장로님, 김준식 장로님과 필자 4명이 첫 만남을 가졌다. 많은 대화 후 「2016 태백기독교교회연합회 신년 하례회」에서 10분정도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시간 할애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님께 프리젠테이션 약속을 받았다.

2016. 1. 6(수) 태백시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신년 하례회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님이 오셔서 '성시화운동의 개요 및 필요성' 을 프리젠테이션 하셨고, 성시화운동본부 설립 여부는 차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016. 1. 12(화)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임원회의가 열렸고,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설립이 가결되었으며,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산하에서 활동하며 자생기반을 갖춘 후 독립하기로 하고, 태백시기독교연합회 조직 중 '교회와 사회위원회,를' 성시화추진위원회,로 하여 오대석 목사님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태백성시화운동 설립 초기 활동



추진위원장(본부장) 오대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함께 기도하며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진 후 정관 제정과 운영조직, 2016년 사업계획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6. 3. 19(토) 첫 번째 사역으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김철영 목사)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평신도 이사(김영명 장로)를 초청 '성시화운동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 4. 14(목) 구성된 ' 민들레중보기도팀, 주관으로 태백연동교회에 임원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매주 1회 모여서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창립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갔다.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창립대회

2016. 5. 1.(일) 루아교회(담임목사 안동기)에서 태백성시화운동본부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I 부. 감사예배〉에서 대표회장 김준철 목사님은 '함께하는 전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우리 태백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태백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성시화는 이루어진다."고 힘차게 선포하셨다. 〈Ⅱ부. 창립대회〉에서 본부장 오대석 목사님은 취임사를 통하여 "부족한 종에게 중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으니 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셨다.

집에 돌아와 방명록을 보니 전용태 총재님께서 "太白市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라고 적어 놓으셨다. 기차 타고 태백에 오면서부터 자꾸 이렇게 찬송이 불러진다고 아이같이 해맑은 얼굴로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태백시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하나님 손 안에서 곱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주소서. 민족의 영산, 태백산 제단에 민족 복음화의 횃불, 성시화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태백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온 국토를 복음으로 적시게 하소서.



글 김옥기 집사(태사랑 유치원 원감)

후원자 명단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경아 김관수 김기선 김남훈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경하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윤흥묵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준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우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아가갤러리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처방전카페

후원계좌 안내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소개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말기 암 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전인적 돌봄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

치료 대상자

- 수술, 항암 및 방사선요법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
- 주치의가 완화의료적 치료를 추천하는 환자

입원 절차

입원환자 (담담의사와 상의) → 완화의료팀 협진 의뢰

외래 환자 →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완화의료상담 및 이용안내

환자 및 보호자 (동의, 전산등록)

입원 결정

특화된 서비스

신체적 돌봄
통증 및 증상조절, 기본간호, 목욕, 스트레칭 체조, 아로마 마사지

영적 돌봄
기도, 상담, 종교별 원목자 연결

사회 경제적 돌봄
전담사회복지사 상담 및 서비스 자원연계

심리 정서적 돌봄
원예, 미술, 다도, 가족교육, 영화상영, 음악회

상담문의: 033-258-9060/9063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HOLY CLUB
홀리클럽 20주년 기념집회
20th
일시 2016년 6월 8일(수) 저녁 7:30
장소 신성감리교회
강사 김기원목사(장위제일교회)
춘천홀리클럽